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윤희진(최유경), 김성중(윤현영), 이필레, 이승이, 강준식(김정연B), 김경상(김해숙), 김기택(배숙자), 김정연A(이선분), 김종선(박영숙), 김춘화,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영애, 백성원(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유현호(이영미), 윤영준, 윤예원, 이근자, 이상학, 이선미, 이소은, 이육남, 이종문, 이찬호, 이춘취, 이태일, 이한철, 이형욱, 이희재, 장윤주(김현진), 정기성(심순옥), 정은천, 채희춘(황영옥), 천세력(영명분), 최기훈(정계숙), 한무희(신정선), 현응건(이윤옥), 황성연(홍금옥).(총39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김성중(윤현영), 이필레, 김경상(김해숙), 김만나, 김원재,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창길(백경자), 김대수, 김희규, 류정현, 류형도, 박금열, 박복례, 박영순, 윤영준(박진숙), 이근자, 이선미, 이순애, 이종문, 이찬호, 이태일(송백현), 이한철(박희영), 이창교, 이형욱, 장성자, 정기성(심순옥), 정양학(박은숙), 조옥자, 채명엽,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정자), 한무희(신정선), 현응건(이윤옥), 바울남전도회.(총35명)

☞ 감사헌금

김성중(윤현영), 이필레, 김현구(서재희),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은숙, 박현섭(권희정), 방복순, 성미영, 신정순, 윤규리, 윤대규, 윤예진, 이복현, 이선미, 이춘호, 이춘취, 이태일(송백현), 임승주, 장성자, 정기성(심순옥), 정영심, 채명엽, 고적4, 중고등부, 무명1.(총26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수현, 김정춘,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강우, 이경자, 이미영, 이설아, 이육남,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신지현, 신현진, 양일석, 이노을, 무명1.(총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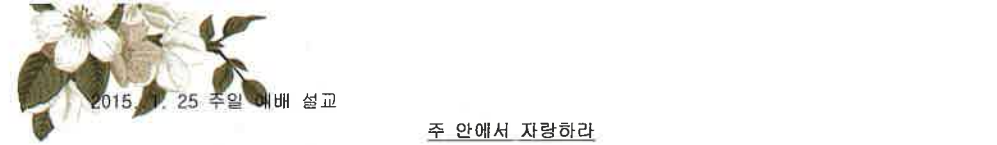
☞ 월정헌금

김대수, 류영철(김형숙), 이순애.(총3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5년 제 5주 : 레위기 11장			
주 일	레위기 12 - 16장		
월요일	레위기 17 - 19장	목요일	레위기 26장 - 민수기 1장
화요일	레위기 20 - 22장	금요일	민수기 2 - 4장
수요일	레위기 23 - 25장	토요일	민수기 5 - 7장

시 무 장 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 퇴 장 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 역 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문수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쉼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블라디뎃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선 교 사	솔 리 스트	김안나 고광훈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문옥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1. 25 주일 예배 설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7-18절 설교: 이진우 목사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자랑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며 분수 밖의 것이 될 때 분명 문제가 생기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바울은 우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뜻은 “그러나 자랑하는 그 사람은 그 자랑을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뻐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2) 바울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사람을 주눅 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근심케 하나 바울의 자랑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량과 한계 내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자랑하고 생명을 자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3)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자랑하며 그 놀라운 보화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는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지혜, 성도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어떻게 주 안에서 자랑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회개함으로 예수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먼저는 문제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 속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2)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아 있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 하면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더럽고 추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들어와도 세상의 악함으로 추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자랑, 나를 높이고 인정 받으려는 교만한 모든 악함을 다 쏙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족으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내 마음과 영과 육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움 받아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과 삶의 모습으로 증거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제 우리가 주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참 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아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 것과 세상 마지막 심판 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높인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은 주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 최대의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참 하나님의 종이요, 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며, 참 사도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3) 성도는 자신이 높아짐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인정만을 기뻐함으로, 자신은 낮추고 겸손하여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은혜를 증거 하여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장소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을 충만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5

No. 41 - 5

2015. 2.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Yee,	진 Jin
	우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